

전라남도 청소년의 약물남용 태도 조사

김은엽*, 박종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보건행정학과
key0227@korea.ac.kr, pajosu@korea.com

Attitude to Drug Abuse in Adolescent in Jeollanam-do

Eun-Yeob Kim*, Chong-Sun Park**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Mokpo Science Colleg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반적 비의도적 약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설문을 하였다. 약물남용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대한 결과는 438명 42.9%는 약물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582명 57.1%는 약물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약간의 후유증은 무시해도 되는가에 대하여 86.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술, 담배, 흡입제(본드, 가스) 등은 중독성이 없는지에 대하여 17.3%가 그렇다고 다소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담배는 피울수록 흡연량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전 교육을 받은 그룹이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그렇다'고 높은 응답을 하였다. 만약 친구가 약물사용을 권유한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 88.9%가 정중히 거절할 것이라 응답하였다. 향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있다면 참여하겠는가에 대한 결과 91.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한 결과 90.3%가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건강 관련 행위 습득을 통해 성인기 건강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서론

1.1 분석결과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 경우 국외는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홍보로 청소년 약물남용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는 되고 있으나, 심각한 약물남용 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2].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학생의 약물남용은 증가추세라 보고되었다[3].

청소년의 시기는 단순히 아동과 어른의 중간 과도기적 단계가 아닌, 사회적 영향을 민감하게 받아 들이는 시기로 변화와 요구에 도전하고 순응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시기이다[4]. 자아의 성숙과 인격적 성숙이 미숙하여 방황과 고민도 많으며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시기이다[5].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미성숙 시기로 변화와 적응을 위한 혼란과 갈등으로 힘든 시기로 자기 통제와 조절 능력이 약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는 빠른 신체적, 성적 성장과 발육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성이 증가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방황과 이탈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6].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심리적 불안과 초조가 증가하는 시기로 비치료적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7, 8]. 청소년기의 음주 및 흡연은 신체 및 정서 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성인 이후까지도 많은 건강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 또한,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 사용에 대한 관계가 개인의 건강상태, 스트레스, 가정환경, 부모자녀관계, 학교, 친구 등의 요인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8, 10].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건강에 해를 주는 위협적 행위는 의도적으로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시기까지 질병이나 사망,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음주, 흡연, 약물사용, 불건전한 건강행위 등을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반적 비의도적 약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일반 재학생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1-3학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설문을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8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대상은 1,020명으로 남자는 477명, 여자는 543명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가 자가 기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문항성별, 연령 문항과 약물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약물 행태, 습관, 지식 등을 16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변인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Cronbach's alpha 는 0.796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program ver 17.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사항과 약물남용에 대한 사전 교육 유무,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행태, 약물남용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약물남용 교육 유무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을 빈도와 t-test, Chi-square test를 통해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3.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과 같다. 남자는 477명 46.8%, 여자는 543명 53.2%로 전체 연구대상자는 1,0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약물남용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대한 결과는 438명 42.9%는 약물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582명 57.1%는 약물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약물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2. 약물에 대한 교육 전 인식 및 행동

연구대상자의 약물에 대한 교육 전 인식 및 행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약물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고 93.8%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호기심에 약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82.0%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74.0%가 생각하고 있었으며, 약물(술, 담배 포함)의 값이 싸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결과 87.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약물(술, 담배 포함)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약간의 후유증은 무시해도 되는가에 대하여 86.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술, 담배, 흡입제(본드, 가스) 등은 중독성이 없는지에 대하여 17.3%가 그렇다고 다소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담배는 피울수록 흡연량이 늘어나는지 조사한 결과 12.3%가 그렇지 않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3. 사전 약물예방 교육 유무에 따른 결과

사전 약물예방 교육 유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약물 사용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질문한 결과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에서 '그렇다'는 빈도가 사전 교육을 받은 그룹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23$). 수은으로 인한 신체 장기의 손상여부에 대한 지식을 물어본 결과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 사전 교육을 받은 그룹에 비하여 잘 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4$). 그러나 담배는 피울수록 흡연량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전 교육을 받은 그룹이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그렇다'고 높은 응답을 하였다($p=0.006$). 담배는 혈압상승, 호흡증진 등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이 사전 교육을 받은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5$).

4. 교육의 효과성

약물예방교육 이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관련 중요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약물 오남용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 결과 72.8%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건강을 해치는 약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질문 결과 82.9%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약물 오남

용은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에 대한 질문 결과 90.3%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만약 친구가 약물사용을 권유한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 88.9%가 정중히 거절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있다면 참여하겠는가에 대한 결과 91.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효과적이었는데에 대한 결과 90.3%가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현재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은 약물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르게 못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전 약물남용 교육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본 결과 약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약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약물에 대한 올바르게 저확한 이해를 갖도록 해준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건강 관련 행위 습득을 통해 성인기 건강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미국 마약통제정책국, "USA ONDCP Report", 2004.
- [2]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2006.
- [3]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06.
- [4] 정명희,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향후 방향",
- [5] Pamela JB, William RB, "Depression in the Adolescent Patient", *Adolesc Med: State of the Art Rev*, vol 9, pp 351-362, 1998.
- [6] 김윤진, "청소년 건강관리", *가정의학회지*, 제26권, 4호, S45-S50, 2005.
- [7] 조태현, 남철현, "대입 재수생 및 편입준비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17권, 2호, pp. 57-74, 2000.
- [8] 김희영,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관한 예측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8권, 제1호, pp. 136-145, 2007.
- [9] McGue, M., Lacono, W., Legrand, L., Moalne, S., and Elkins, I.,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ge at first drink, Parts I and II",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Vol 1, pp. 1156-1173, 2001.
- [10] 이현정, 홍성도, 정유숙, 박현주, 최상섭, "발병시기에 따른 청소년 약물남용의 특성", *신경정신의학*, 제40권, 6호, pp. 1194-1203, 2001.
- [11] 최진, 김미예, "고등학교 청소년의 건강위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제15권, 제2호, pp. 182-189, 2009.